

## 주료인

주료인(壽量院)은 1174년에 고시라카와 법황(1127~1192)이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들어앉아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린 탑두(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)로서 건물은 특별한 격식을 갖추고 있고, 엔교지 절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탑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현재의 구조는 고전적인 신텐즈쿠리(헤이안 시대에 집대성된, 침전을 중심으로 발달한 귀족 저택의 양식)와 초기 쇼인즈쿠리(무로마치 시대(1336~1573) 이후에 발전한 무사 주택의 형식)가 절충된 건축 양식입니다. 쇼인즈쿠리는 다다미를 깔고, 도코노마(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), 지가이다나(두 개의 판자를 아래 위로 어긋나게 매어 단 선반)를 갖추고, 각 방을 맹장지로 구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식으로서, 오늘날 일본식 방의 원형이 된 구조입니다. 중앙의 불당에는 깨달음을 보증해준다는, 극락이 묘사되어 있는 다이마 만다라의 모사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.

현관 다음에 설치된 방과 가라하후(중앙은 활꼴에 양끝이 곡선형으로 된 박공의 한 가지)를 갖춘 맞배지붕의 우아한 문은 주료인의 거주 부분과 부역을 설치한 구리(庫裏)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중 한 방에는 엔교지 절을 중심으로 전해져온 칠기인 ‘쇼샤누리’가 전시되어 있어 색이 선명하고 형태가 다양한 그릇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주료인은 결혼식과 그 외의 사적인 행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예약을 하면 쇼샤누리 칠기에 담긴, 전통적인 사찰 음식인 쇼진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